[교회 표어] ·은혜충만 · 진리충만
[교회 3대 목표] ·세계선교 적극화 · 일천교회 설립 · 전성도 성령충만
[성도생활의 목표] ·전도와 봉사에 힘쓰자 · 모이기를 힘쓰자 ·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갖추자

은혜와진리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

◆각 나라별 선교회

구 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산본,포일,부곡	수원,영통,진위,전원,동탄,안중,평택,용인,남양,율전,전주효자	안산,시화,시흥,인천,부천,부평,영종도	과천,판교,강남,구리,광주	광명,영등포,원주,천안	일산, 김포, 장유, 전주평화	수원,양주,서산,당진	수원,대구,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구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콰이어							

봉사, 선교기관 소개

② 국내선교연합회

우리 교회 국내선교연합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막 12:31)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모여서 기도하며 복음전도를 위해 봉사하는 선교기관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각기 다양한 재능을 가진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의 열정으로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구성된 성전별로 다양한 선교부가 속하여 있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직능별 선교부에서 회원들이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복음 전도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① 교육선교부	각급 학교 및 학원 종사자,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합니다.
② 교통선교부	운수 업체와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도하며, 몸이 불편하거나 병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③ 군경선교부	군인과 경찰관,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군 복무 중인 성도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④ 노방선교부	성전 인근지역과 공원, 시장, 전철역 등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모이는 곳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⑤ 병원선교부	병 · 의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도합니다. 병원 심방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고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⑥ 복지선교부	장애우와 연로하고 병약한 사람들,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들이 결신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아원 등의 사회복지 · 요양 시설, 노인회관 등을 찾아 주님의 이름으로 성심성의껏 돌보며 봉사합니다.
⑦ 상공업선교부	기업을 운영하거나 전문경영인,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는 성도들이 모여 기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를 위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며 일천교회 설립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⑧ 소방선교부	소방서 및 소방관련분야 업종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봉사를 합니다.
⑨ 직장선교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직장 내의 신우회 설립과 예배를 지원합니다.
⑩ 체육선교부	체육계 종사자, 체육관 등 체육 관련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합니다. 학원 스포츠 현장, 각급 학교내 운동부도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 본 선교연합회에서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과 봉사자들을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성전 국내선교연합회 또는 교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중·고등 학생 〈자율학습 비전스쿨 : 온라인 ZOOM 독서실〉

① 온라인 ZOOM 독서실 참여 학생 모집

▸대 상 : 자율학습을 원하는 우리교회 중 · 고등부 학생 누구나
▸장 소 : 각자 방 또는 독서실에서 ZOOM 온라인 모임 링크로 접속
▸방 법 : 멘토 봉사자와 온라인 ZOOM 공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한다.
입시 · 신앙 상담, 모르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멘토에게 물어볼 수 있다.
▸일시(2차) : 4월 3일(월) ~ 4월 21일(금)까지 (※3차는 5월 1일 ~ 5월 26일까지 예정)
평일- 오후 7시~10시/3시간, 수요일- 9시~11시/2시간(이후 12시까지 자율학습 가능)
▸모집기간 : 상시 모집(신청자에게 줌링크 개별공지)
▸문 의 : '자율학습 비전스쿨 온라인 ZOOM독서실' 담당자(☎010-5395-0939, 010-9175-2356)
▸신청방법 : 아래 QR코드 접속 후 신청

신청방법
QR 코드 :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

② 온라인 ZOOM 독서실 참여 봉사자 모집

▸대 상 : 위와 같이 중 · 고등부 학생들의 자율학습 지도가 가능한 성도님
▸신청방법 : 위와 동일한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서 작성

은혜와 진리소식

제1821호 1982년 8월 8일 창간

2023년 4월 9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27:4)"

- 이경환 -

저는 부모님이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주일에는 항상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고등부를 수료하고 20살 청년이 되자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마음이 이끌려 교회생활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주말에는 청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며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대신 불신 친구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주일예배만 참석해도 괜찮아'하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활하며 교회 청년들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며 보낸 23개월 동안의 군 생활 중에도 신앙심이 독실한 주임상사님을 따라 매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였지만 더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6개월쯤 지나서 주일 6부예배에 참석하였을 때입니다. 대성전에 들어가려는데 저와 달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친동생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생의 소개로 성전 입구에서 예배 안내봉사를 하고 있던 한 청년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요청에 마지못해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 며칠 뒤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동생을 생각해서 답장을 보낸 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저는 토요일에도 교회에 나와 청년모임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세상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저를 하나님께서 교회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청년모임을 통하여 많은 신실한 형제자매들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저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그 후 처음으로 참석한 청년 수련회에서 당회장 조 목사님의 특강 말씀에 크게 감화 감동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장소와 상황에서도 성도의 본분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나 스스로 만든 기준을 가지고 간혹 술자리 같은 모임에 참석하여 불신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 2학기가 시작될 무렵, 저는 취업 준비로 정신없던 중에 청년봉사선교회에서 주일 봉사에 대한 권면을 받았습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어떤 봉사를 할까, 내가 봉사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저런 고민을 하며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면이 고맙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일에 성전 앞에서 성도님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주보를 나눠드리는 등의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9월부터 3명의 팀원들과 함께 주일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쁨이 제 삶에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하면서 교회중심, 말씀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3개월 뒤, 전공과 출퇴근 거리 등 저의 바람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청년봉사선교회 활동과 교회 봉사를 하는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주일예배 안내봉사 팀장이라는 새로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로서의 경험이 없던 저에게 팀장이라는 직분은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봉사의 직분을 주실 때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심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저의 신앙이 크게 발전하고 진보하는 귀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팀장의 직분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귀한 직분과 임무는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가 제 모든 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그런 봉사를 하기 위해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혼자서 모든 일을 이끌고 가려고 하던 저의 성격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체험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릴 때면 즉시 신실한 청년과 교역자님들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 더욱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과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자 교회당에서의 예배와 봉사가 몹시 그리웠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할렐루야!" 하며 밝고 환한 미소로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맞이하고 배웅하는, 그 은혜와 감동이 사무치도록 마음에 간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내려 주시는 다양하고 풍성한 은총을 속히 다시 받고 누리게 되길 바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시편 84:1~4). 아멘.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기간에 닿고 오묘한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의 세계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당회장 조 목사님의 강해설교 말씀을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신령한 지식이 한층 깊고 풍성해졌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저는 안내봉사부장의 직분으로 성도님들을 위해 변함없이 성심성의껏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내가 만약 우리 은혜와진리교회 청년봉사선교회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관, 구원관,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드리곤 합니다. 지금 이 말세지말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불신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시대적인 긴박감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수원 : 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 (하안동)	T. 02-894-3731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39-11(광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 041-667-3731
		율전 : 수원시 장안구 하틀로 55(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누가복음 12장 32절~50절 강해 설교”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 누가복음 12장 32절~50절 강해 설교
- 찬송 : 찬송가 265장(새찬송가 516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5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에는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과 세력이 매우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말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1876년 단 1명이던 기독교인의 수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06년에는 4만 4천 명이 되고, 1910년에는 1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북한 지역은 남한 지역보다 기독교가 먼저 전래되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해방 전 북한의 기독교인 수는 30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6.25 전후에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하여 교세가 미약했던 남한 지역에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에서 계속 1위를 유지하던 불교가 2015년에 급감하고 기독교가 월등하게 1위가 되었습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기독교 9,675,761명, 불교 7,619,332명, 천주교 3,890,311명입니다.

195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인구수에 비하면 기독교인은 ‘적은 무리’였습니다. 적은 무리였기 때문에 사회와 가정에서 핍박과 곤란을 감내해야 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을 업신여겨 공공연히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이 ‘적은 무리’인 국가들에서는 많은 위협과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시대에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견디어야 했던 위협과 곤란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이러한 ‘적은 무리’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과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온갖 박대와 고통과 손실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 5:11,12)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된 것을 최상 최대의 행복으로 알면 어떤 핍박이나 곤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의기소침하여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변호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개인신상에 관하여 확인하더니 놀라운 일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를 평소에 양아들이라고 부르던 어른이 그를 호적상 양자로 삼고 그분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 남자는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인생 최대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다른 문제는 사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비밀’을 가르치셨고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종종 말하십시오.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재물을 유용하고 효과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거기에 따르는 염려가 생깁니다. 도적이 있고 좀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이란 해충을 말하기보다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인생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입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나 천국에 미리 보낼 수 있습니다. 땅의 보물이 하늘의 보물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천국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구제를 위한 헌금은 천국에 예금한 것이 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시간과 돈과 체력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었다는 증거입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하여 세 부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한 것이 헛된 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재림을 고대한 만큼 주의 일에 힘쓰며 경건하게 살게 된 것으로 인하여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② 예수님의 공중 재림 시에 휴거될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대비한 만큼 그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③ 7년 대환난을 통과하게 될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가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휴거에 낙오된 것을 알고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순교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집에 간 주인과 집을 지키는 종을 비유하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설명하였습니다. 두 개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째,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길고 통이 넓어 활동을 할 때는 띠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둘째, 등불을 켜고 있으라 하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지체 없이 문을 열고 맞이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의 승천과 재림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경에 오실지 삼경에 오실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식으로는 밤을 사경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은 오후 6시에서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4경은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유대식으로는 삼경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은 오후 6시에서 10시, 2경은 10시에서 2시, 3경은 2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로마식이든 유대식이든 분명치 않으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올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과 밤 시간이므로 기다리는 사람이 자칫하면 졸거나 자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즉각 등불을 들고 문을 열어 맞이하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또 하나의 상황을 설정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도적은 밤중 불시에 침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대비하고 있지 않는 신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비하고 있는 신자에게는 감당치 못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아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살전 5:1~6)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를 대비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거룩하고 경건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말씀이 거듭 선포되었습니다.

41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쭈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오는 것과 이를 대비하지 아니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하기를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 대신 반문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하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신자라면 누구나 다른 신자를 돌보는 임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에서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진 자입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혜와 진실로써 주인의 식솔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신령한 양식인 성경을 인본주의 사상이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왜곡되고 혼잡하게 하여 먹이는 자는 책망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말씀입니다. 숭고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도이며 생명의 양식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지한 자세로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였습니다. 청지기 임무를 잘 수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영광에 이르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찌어다”**(마 25:21)라고 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상급 심판에 대하여 절실한 믿음이 없는 청지기는 자신의 사욕을 좇아 치우쳐 행할 것입니다. 결국 그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불성실하였거나 혹은 잘 알지 못하여 불성실하였거나 모두 처벌을 받게 되지만 고의적인 경우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력과 능력이 많은 일꾼은 경력과 능력이 적은 일꾼에 비하여 특권과 함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매순간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비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청지기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인본주의 사상을 추종하여 세월을 허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성경대로의 창조신앙, 구속신앙, 재림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49절,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땅에 던지려고 하신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령 혹은 심판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의 받을 세례’와 연관하여 보면 ‘구속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불처럼 사람들의 심령에 점화되고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란 대속의 고난을 말합니다. 체포되고 심문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형벌 받아야 하니 생각만 하여도 몸서리치는 일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퍼져나가려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수되어야 하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신자들이 권능을 받아 열정과 담대함으로 널리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제자들은 낙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으나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슬픈 마음을 억제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다지도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그들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께 있었던 일이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보인 예언자요, 권능 있는 선생으로 높이 존경을 받는 분이었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붙들어 로마 정부에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소.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이 난국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해 왔소. 이런 일이 있은 것은 사흘 전이었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오. 그분을 따르던 우리 동료들 가운데 여자들 몇이 오늘 새벽에 그분의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만 보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소.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달려가 보니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도 미련한 자들이냐? 너희는 예언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그렇게도 믿어지지가 않느냐? 그리스도가 영광스런 자리에 앉기 전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예언자들이 명백하게 예언해 두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예수께서는 모세의 글부터 시작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 가면서 그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적지인 엠마오에 거의 다다랐으나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 저물었으니 그 밤을 자기들과 함께 묵어가시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주막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자 예수께서 떡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 기도하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강림을 체험하였습니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여러 나라에서 건너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큰소리가 그 집 다락방에서 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려고 달려왔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 나라의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말하기를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의 요점은 지금 그들이 듣고 보는 현상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과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역설했습니다.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뜨거운 감동의 불길이 그들의 심령에 점화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날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5천 명의 심령 속에 복음의 불길이 붙었습니다. 복음의 불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유대로 번져 갔습니다. 그 불길은 더 널리 확산되어 이방 지역인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유럽 전역, 각 섬과 대륙 어디든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되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그 심령이 냉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심령에 복음의 불을 점화시키는 일에 진력하시기를 바랍니다.